

역량중심 교양교육과정 모델링 사례연구

김혜영¹⁾

요약

본 연구는 산업계가 대학에 산업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제시하면서 고등교육의 주요한 교육목표가 된 역량기반 교육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서울 소재 A대학은 역량기반교육의 실천 방향으로 초기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별 역량을 설정하고 개별 교수자에게 역량 강화 노력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던 시기를 넘어 교육의 목표를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설정하여 개편하였다. 이에 교양교육과정 상의 교과에 교육방법까지 역량 강화형으로 구현하여 최근 4년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전공별 교육과정이 아닌 대학의 기초 및 공통교육이 되는 교양교육과정 체계를 다양한 수요를 중심의 개편 근거와 역량중심 교양교육과정 설계의 과정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한계와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량중심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이 아이디어를 얻고 공동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되는 말 : 역량중심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핵심역량, 고등교육평가

I. 서론

학령인구의 급감이라는 문제를 두고 대학들은 줄어든 입학 자원들 내에서 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학생유치 자체를 대학 생존의 목표로 삼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도 많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교육계의 우려와 함께 대학정원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교육부는 고등교육과정 평가를 고도화하였다. 대학이 사회 및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해 줄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적 기능에 더 관심을 두고 기관인증평가 또는 대학역량진단 등의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단이나 평가에 관련된 정책은 대학이 사회 및 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평가 결과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평가 준거를 준수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 경영에 중요한 부분이다(최호중 2023).

교육정책의 변화는 재정지원사업과 함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와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등 대학평가에 반영되어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최호중 2023).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 2014년 이후 3년마다,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대학정원과 연계하여 추진한 바 있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단위로 2만 4천 명 정원 감축을 권고하였는데,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정원 감축 외에도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대학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이다. 즉, 특수목적성 재정지원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정원 감축을 연계하고, 총 4만 6천 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었다. 2018년에도 대학의 진단과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정원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하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의 연계로 총 8천 176억 원 정도를 대학에 투입하였다.

역량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의 목표전환은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서만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산업계는 학력이나 표면적 지식 대비 개인이 보유한 기본역량이 조직의 직무를 위한 성과에 중요함을 알고 있었다(김혜영 외 2021a). 핵심역량이 직업과 직무에 관련된 능력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상적인 힘과 특정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일반화될 수 있기에(김혜영 외, 2021b), 대학의 교양교육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수년간 고등교육에서는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송진영, 정경희 2020). 역량 함양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각 대학은 대학만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핵심역량과 연계하여 개발·편성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하여 개편 또는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박진희 2024).

대학은 교양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속하여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인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들은 교양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 현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강경희 2020). 대학교육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토대교육의 성격을 지니는 교양교육과정 개편은 대학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정연재 외, 2021). 그렇기에 산업 및 사회 요구에 맞는 대학 교양 교육이 되기 위해서 학생의 핵심역량 제고와 학생 진로 및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강경희 2020).

대학은 일반적으로 대학이 정한 일정 기간을 주기로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과 진단을 수행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A대학의 경우에도 4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개편을 진행하는데, 본 연구는 서울 소재 A대학교의 교양 교육과정 개편 과정과 결과를 사례로 하여 그 모델링 과정에서의 수요를 근거로 제시하고 역량중심 교육과정 체계를 마련해가는 절차를 공유하고자 수행되었다. 다음은 대학들이 역량을 새로운 대학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게 한 대내외적 수요와 변화에

대해 각종 문헌 및 매체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많은 대학이 운영 중인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양교육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A대학이 역량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과에서 핵심역량을 연계하던 수준을 넘어서 교양교육의 영역을 대학의 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해당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교과 형태를 제안하면서 교과 유형 및 수준을 구분하여 운영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 핵심역량에 대한 요구

급격한 산업의 변화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구체적 지식이나 기술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한다(김혜영, 이숙정 2012). 산업의 성공과 쇠퇴의 주기가 짧아지면서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오랜 기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산업 및 사회는 불확실한 미래에 잘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능력이라는 역량을 강조하였는데(박진희 2024), 이에 국내 많은 대학이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였다(송진영, 정경희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은 지식전달에 초점을 둔 교육보다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나 지식 활용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김혜영 외 2021b). 역량기반 교육은 현대 사회의 실제적인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 역량과 관련된 수행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성취를 평가하려는 교육이라고 설명되었는데(Grant, 1979), 이러한 역량교육의 취지는 산업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을 위한 전공 및 교양수준에서의 소양교육 목표로 적합하다. 지식기반사회,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는 여러 영역을 조망하고 종합적으로 사유하여 창의적인 발상을 할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에 대학교육도 특화된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송진영, 정경희 2020).

2. 대학평가와 대학의 노력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3주기로 구분되는데, 1주기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진행되었고 2주기부터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명칭이 변경되어 1, 2단계로 진행되었으며, 3주기는 2021년에 수행되었다. 특히,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제도적 노력에 대하여 관련 지침 수립의 체계성과 구체성, 관련 지원 조직 구축 및 운영의 체계성,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예산 투입 및 환류의 적절성, 관련 환류 제도의 주기성과 체계를 진단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노력에 대하여 지표를 제시하여 평가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8).

대학기관인증 평가에서도 대학의 발전계획 하에서의 대학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교육품질 개선, 교육만족도 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질 보장, 교양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평가는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데(최호중 2023), 이렇게 국가가 대학이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의도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이에 면밀한 대응을 하고 있다.

3. 대학별 교양교육과정 현황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행위를 통제하는 설계도의 기능을 하는 만큼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김대현 2023). 그 중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함

깨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교육이다(정연재 외 2021). 대학은 전체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서 교양 교육과정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수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강경희 2020). 교양교육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사회 및 자연에 대한 기본 원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해능력을 넓고 깊게 습득하는 학문이며(홍석민, 2022),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배양시켜 학문의 기초를 탐색하게 하며, 인생의 장기적 비전 수립을 가능케 하는 교육으로 전공 진입을 위한 예비교육의 차원을 넘어선다(정연재 외 2021).

이러한 교양교육의 목표에 대학의 핵심역량이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1>은 대학별 교양교육의 목표와 교육영역에서의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살펴본 것으로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역량을 교양교육과정에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대학별 교양교육의 목표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	핵심역량 교육영역	
서울	서울대학교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학생을 양성	기초핵심능력을 형성하는 학문의 기초영역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표현 및 엄격한 분석·추론 등 대학에서 활용하게 될 핵심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영역을 운영하고 있음
	이화여자대학교	교양 5대 영역을 설정하고, 지식탐구역량, 창의융합역량, 문화예술역량, 세계시민역량, 공존, 공감역량의 5대 핵심역량을 교양교육 목표로 설정하였음	교양교육과정의 5대 영역으로 기초인성, 자기설계, 외국어, 융복합사고, 의사소통 등의 역량을 추구하고 있음
	고려대학교	자유, 정의, 진리의 3가지 교육이념을 6개 핵심역량(글로벌역량, 도전적 리더역량, 공감소통역량, 사회적책임역량, 융합적사고역량, 창의적문제해결역량)으로 매핑하여 운영함	교양교육의 영역은 공감적 인격, 합리적 소통, 성찰적 융합교육의 영역으로 영역별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영역명 및 세부목표가 대학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설정임
지역거점	충북대학교	교양과정은 학문탐구의 기본소양과 바람직한 인성 및 역량을 갖춘 창의적 미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함 창의성, 휴머니즘, 능동성, 공동체, 글로벌, 전문성의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음	기초교양영역 - 전인적 인간으로서 요구되는 보편적 기본소양과 대학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함 일반교양영역 - 인류가 이루어낸 학문과 문화를 이해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교양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구성 확대교양영역 - 융·복합 분야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과목으로 구성 자연이공계기초과학영역 - 자연이공계 전공의 학문 기초 역량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구성
	충남대학교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인격체를 갖춘 지성인을 양성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 일반교양, 특별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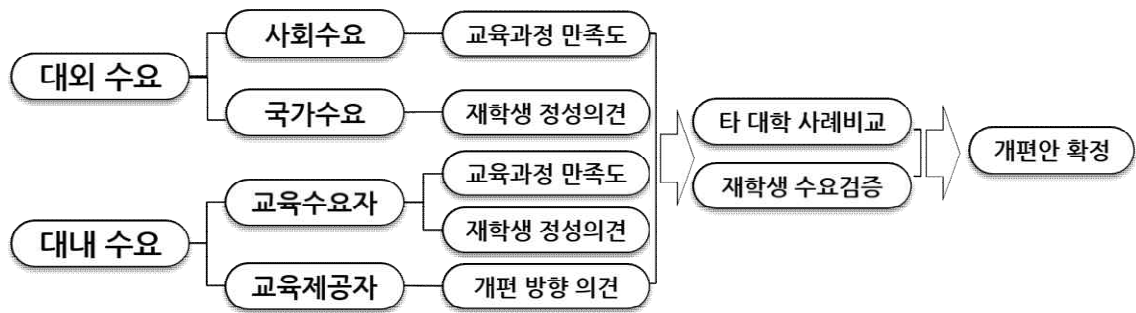
	<p>함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지식융합능력을 갖춘 지성인’을 목표로 함</p>	<p>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핵심교양은 교양교육 6개 역량(창의·융합역량, 글로벌역량,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역량, 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에 대하여 단과대학별로 지정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음</p>
--	---	---

III. 연구방법

대학이 대학 고유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교양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편 과정에서 가장 먼저 교육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확인한다(정지연 2024). 교육수요자의 범위는 넓게는 국가, 사회, 교육부, 지역사회, 학생, 교원, 학부모까지 다양한데(박창언 2016, 오형균 2012), 교양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대외 수요에 해당하는 산업 및 교육부의 요구를 문헌 및 매체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기획을 한 후, 대내 수요로 학생 및 교원 대상의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매년 진행되는 교양교육과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역량중심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A대학은 2019년 2월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및 논의를 시작하여, 2019년 3월~11월까지 별도의 연구와 행정 담당 구성원들이 연구자가 기획하는 교육과정 설계안에 대해 검증 및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18차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외적 수요뿐 아니라, 종합적인 만족도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개편을 위해 제시된 이슈별 아이디어들은 연구위원회 형태로 교원 및 행정 책임자의 검토를 받는 동시에 교원 대상 조사 등을 통해 각 요소를 확인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림 1> 역량중심교육과정 설계 추진 절차

를 통해 아이디어와 개편안이 정리되고, 마련된 추진안들은 단계별로 2020년부터 운영될 교양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교무위원회 등 및 기관의 교육과정 개편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를 통해 최종 의견이 수렴되고 수정되거나 추진에 대한 확신을 얻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개발된 역량중심교육과정 모델은 2020년부터 핵심역량기반의 교양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까지 운영되면서 핵심역량별 균형 및 역량향상 정도가 모니터링되었고, 신규 교과를 개발하거나 교과 레벨을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핵심역량교양교육과정으로 정교하게 수정되면서 완성되었다.

IV. 연구결과

1. 교육수요 분석 결과

대학은 교육이념,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대학교육도 학교의 자원과 운영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김양희 2021). 그러나 대학은 교육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에 수요자의 요구에 충분히 반응해야 한다. 대학 교육 수요자들은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등 전반적인 채용환경이 역량 및 능력 중심이 되고, 나아가 인공지능기반 인사관리(HR: Human Resource)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지면서 학력, 자격증 등의 요소보다 보유한 기본역량이 조직 문화와 직무에 성과를 내는데 얼마나 적합한지가 선발기준이 되었다. 이는 역량 성장상태 기반의 평가가 주된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교육수요자들은 대학이 산업에 요구에 맞는 교육 기능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은 공급자 중심 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교육 공급자인 학교와 교원, 교육 행정기관의 운영상 편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중심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양희 2021). 여기서 교육수요자란 교육을 받는 직접적인 대상인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산업체 등이 포함된다(김양희 2021).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에서는 일차적 수요자를 학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란 한 마디로 교육수요자인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1) 교원 대상 조사

A대학은 교원 대상 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85.5%가 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으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교양교과는 교과목의 내용이나 교과 이수율 위한 과정이 학생들에게 쉬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75.8%의 교원들이 반드시 쉬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답하였다. 특히 서술형의견에서도 교양교과목의 난이도나 이수율 위한 노력의 강도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난이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터넷(유튜브 강의 등)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콘텐츠들과는 오히려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숙명여자대학교 2020). 즉, 대학수업에서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심화 지식이나 역량이 함양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양 교과에 난이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양 교과를 수준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73.8%가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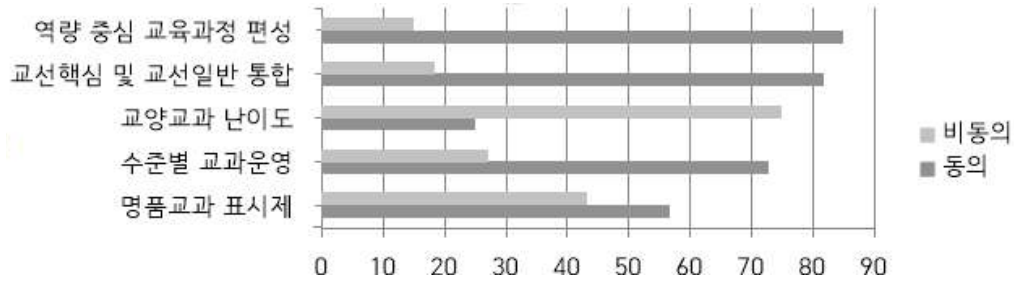
교원 대상 조사에서는 역량중심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동의율 85%, 비 동의율 15%, 교양 핵심과 일반의 구분통합에 대해 81.7% 동의 및 18.3% 비동의를 보였다. 교양 교과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72.9% 동의 및 27.1% 비동의를 보였다. 교과 자체의 내용 난이도에 대해서는 25%의 동의 및 75%의 비동의를 보이며, 교과 자체의 난이도를 주기보다 일반적인 교양 수준에서 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하되 역량의 강화를 실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수준을 구분하여 교과목의 유형을 구분하기로 하였다.

교양 교육의 목표에 충실하면서 재학생들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조건에 부합하는 교과에 대해 ‘명품’ 교과를 명시하여 학생들이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동의율 56.7%와 비동의율 43.3%의 결과가 나타났다. 우수한 교양 교과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우수한 교과를 수강할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교과를 운영하는 교수자에 대한 인정을 통해 긍정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많은 우수교양 교과를 배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56.5% 정도 동의 대비 43.5%의 비동의 차이가

주목하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하면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

A대학 교양 교육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원들은 교양 교과들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는 교과목의 결과물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수준 높은 교과를 집중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흥미 위주가 아닌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교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교과 품질 개선을 위해서 심층, 심화 코스로의 연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교과 구성 체계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교육과정 개편 시, 교양 영역을 재편성하거나 교과목을 개발, 폐지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김양희 2021). A대학 교양 교육과정은 핵심교과, 일반교과 등으로 나뉜 교양선택 교과 체계를 갖고 있었다. 내부적으로 일반교양과 핵심교양의 특징이 구분되지 않았고, 유사 교과가 일반 및 핵심교양 교과에 나뉘어 배치되는 등의 구분이 모호하고 운영상 비효율성을 보였다. 이에, 개편 교육과정에서는 핵심과 일반의 영역을 대부분 핵심으로 구분하고, 일반교과는 특수목적성 교과나 비교과형 교양 교과들을 배치하는 형태로 핵심교양 교과로 정리를 하였다. 특히, 대학 규모 대비 상당히 많은 400여 개 교과를 운영하고 있던 측면에서 300개 수준으로의 교양 교과 관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 역량중심교양교육과정 설계 방향에 대한 교원 의견

2) 재학생 대상 조사

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생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교양교육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강경희 2020). 이에 대학은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교육만족도를 조사한다. A대학은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대학별 만족도 및 학년별 만족도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만족도와 교양 교육과정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였다. 학년별 교양 교육 만족도는 6학년, 4학년, 5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는데, 5, 6학년(초과학기 중인 일반학과 학생, 약학대학 학생)으로 1~4학년(전체 학과 학생)과의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당시 약학대학이 체제변화를 겪던 시기로 6학년의 경우 약대학생들을 의미하는데, 약대 6학년의 경우와 초과학기를 듣고 있는 재학생들의 수강학점 자체가 낮고 실제 고학년의 경우 교양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본인의 선호, 정보력 등이 좋기에 실제로 마음에 드는 교과목을 수강할 확률이 높아서 나온 결과로 해석되었다. 특히 서술형 만족도 의견의 분석을 통해 재학생의 수요를 정리하여 내부적인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리고, A대학 대내외적 여건에 의해 핵심역량기반의 교양 교육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해 재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재학생에게 2020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개편의 상세한 설계와 관련하여 교양 교육 현황 (4문항), 교양 개편에 대한 의견 (5문항), 신규 교과목에 대한 의견(3문항) 등의 수요를 구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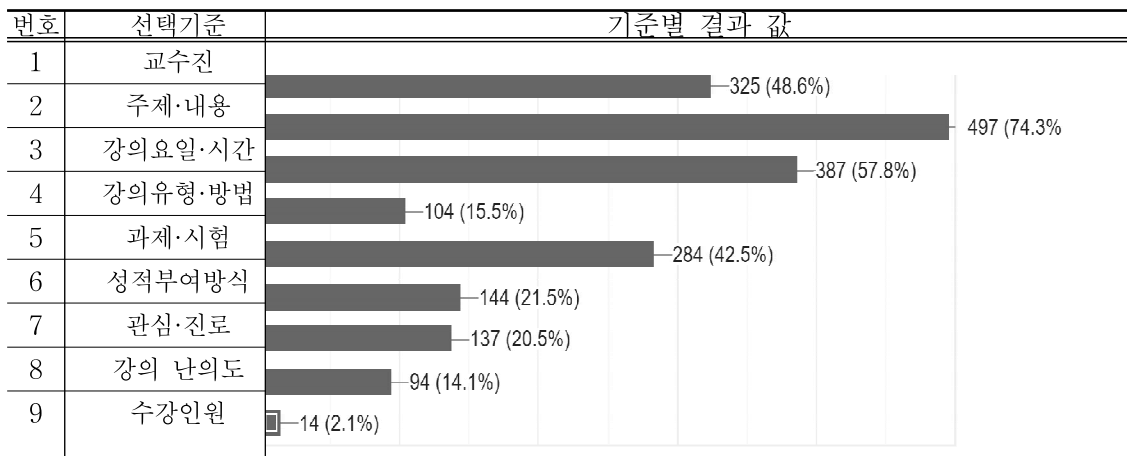
(정효정 외 2019)에서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요구조사 문항을 A대학 교양 개편 영역에 따라 재구성

<표 2> 역량중심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조사 문항

구분	설문 문항	문항
교양 교육 현황	기존 교양 교과목에 대한 인식	기존에 수강한 교양 교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억에 남는 교과목의 특징	수강했거나, 수강 중인 교양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교과목과 그 교과목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운영방식 등)
	교양 교과 선택 시 고려하는 부분	교양 교과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양 교과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양 개편에 대한 의견	교양 핵심의 역량 영역에 대한 의견	교양 교육과정을 통해 가장 강화하고 싶은 역량은 무엇인가요? 선택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수업이 개설되기를 원하나요.
	교양 핵심의 특화 영역에 대한 의견	교양 교과로 가장 관심이 있는 특화 영역은 무엇입니까? 관심있는 특화 영역에서 신설되었으면 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제시된 특화 영역 이외에 관심 있는 특화 영역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세요.
	교양 개편에 대한 전반적 의견	교양필수 및 핵심 개편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교과목에 대한 의견	신규 교양 교과목에 대한 기대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교양 교과목은 어떠했으면 합니까?
	신규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의견	어떤 유형의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고 싶은지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교양교과목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십시오.

주목하여 확인할 부분으로 교양교과 선택 기준에 대한 응답이 있었는데, 총 669개의 응답 중에 497개의 응답에 해당하는 강의 주제 및 내용이 관심사이거나 전공 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서 총 74.3%에 해당하였다.

<표 3> 재학생의 교양교과 선택의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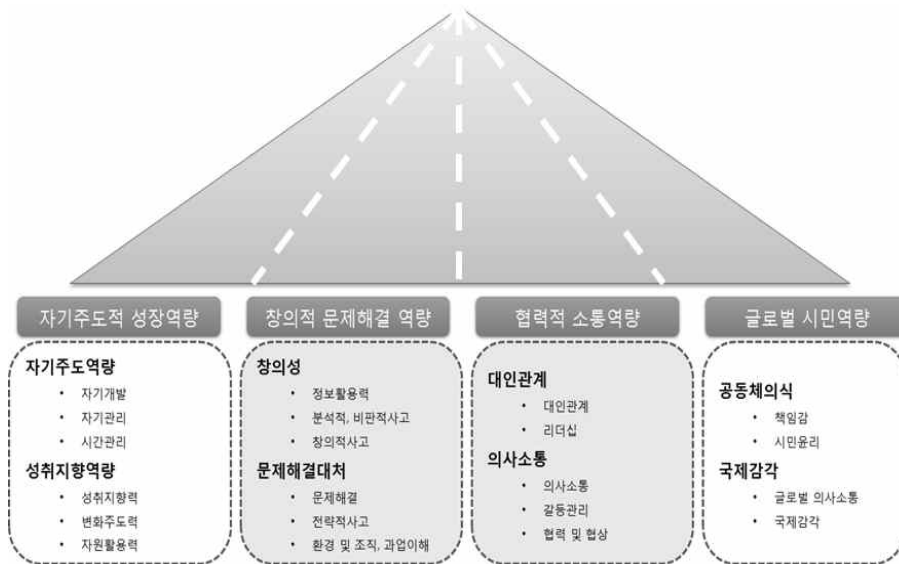


2. 역량중심 교양교육과정

1) 교육과정 문제점 검토

A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양필수, 핵심, 일반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교양 핵심교과와 일반교과 간의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목적에 맞게 구분하였다. 기존의 핵심교양 교과목 구분은 학과나 계열 개설 과목을 집중적으로 한 영역에 배분하여 학생들이 다수의 영역을 교차하여 수강할 경우 다양한 교과를 접해본다는 의미는 있으나, 대개는 교과목을 산발적으로 듣게 되어 수강한 교과 간의 유기적 연결성이나 단계적 발전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핵심교양과 일반교양으로 구분된 교과영역 간에는 일부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명 상으로 볼 때 유사한 과목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점도 드러나서 핵심과 일반의 구분이 그 의도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생들은 교양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기존의 교양 교육체계 중 특히 핵심교과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핵심영역별 교과편성의 불균형에 대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교육과정 개편 목표



<그림 3> A대학 역량중심교양교육과정의 목표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양 교육의 목표 설정이라 할 수 있다(김양희 2021). 교육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교양 영역과 이수학점 등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양희 2021). A대학 교양 교육의 목표는 대학의 인재상에 따른 대학이 설정한 핵심역량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로 설정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준 및 전문성을 고려한 교양 교육체계로 개편을 시도하였다. 대학의 인재상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A대학은 설립 취지 등을 토대로 시대에 적합하며 고유한 인재상에 따른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A대학 교양 교과목의 수는 대학 규모 대비 많은 편이지만, 학생들은 교양 교과목 선택의 폭이 좁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하고 있었다. 이는 교양 핵심과 일반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구분되어 운영되는 가운데 핵심영역은 기존 학문 분야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과가 쉽게 찾아질 수 있도록 해당 교과의 기본적인 교육목표가 A대학 핵심역량에 있음을 명시하고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하기로 하였다.

재학생들은 교양교육을 통해 강화시키고 싶은 핵심역량으로는 자기주도적 성장역량(46.04%), 창의적 문제해결(26.9%), 협력적 소통(14.02%), 글로벌 시민 (11.21%)의 순서로 조사되어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교과목 수를 관리 및 운영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재학생들은 자기주도적 성장역량을 가장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창의적 문제해결역량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교양교육을 통해 함양하고 싶은 핵심역량

번호	역량명	응답 빈도	비율
1	자기주도적 성장	308명	46.04%
2	글로벌 시민	75명	11.21%
3	창의적 문제해결	188명	26.9%
4	협력적 소통	98명	14.02%

3) 역량중심교육체계의 구조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대학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고, 지식기반 사회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대학에게 지식교육보다는 지식을 스스로 생산하고 응용·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역량영역별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송진영, 정경희 2020). 학생들은 교육목표와 편성,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성장 및 진로에 도움되는 교양 교과목에 추천 의향이 있다고 하였다(강경희 2020). 이에, 학생의 성장과 역량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양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은 각각의 교양 교과목에 핵심역량을 단순 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교양 교과목 수업 내용과 방법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포함되어야 했다.

이렇게 지식을 다루는 능력인 역량은 행동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하기에 A대학은 수준을 구분하여 지식의 수준이 아닌 학생 스스로 행동이나 학습과정과 경험을 통해 역량을 더 깊이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핵심영역이 4개의 역량기반의 구조로 간략화되는 교양교육과정 체계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교과의 특징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교수법으로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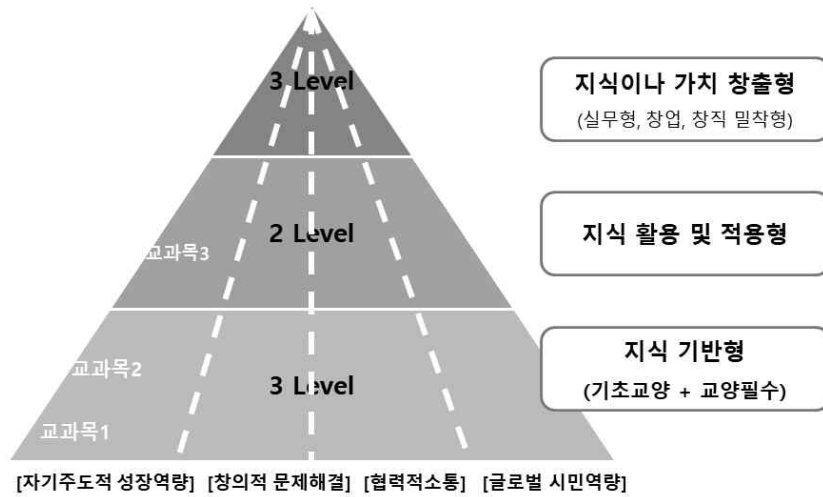
1단계 교과목으로는 평이하고 관련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교과목으로 대형 강의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제하고, 2단계 교과들은 전문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으로 중형 강의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의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는 강의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 교과목은 강의를 최소화되고 구체적인 개인 성과물(소논문, 소형프로젝트 등)을 내도록 교수자가 집중지도하는 형태의 교과목으로 소형 강의를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었다.

<표 5> A대학 역량강화형 교양교과 유형

유형	교육방법	교육 방법 구성	교육 내용
1	프로젝트형	강의 30% 미만 + 프로젝트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
2	참여형	강의 50% 이하 + 참여 50% 이상	지식을 활용하는 내용
3	강의형	강의 80% 이상, 지식·정보 전달 형	지식을 습득하는 내용

재학생 대상의 조사에서 앞으로 수강하고 싶은 교양 교과에 대해서 재학생들은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교과의 유형으로는 강의형, 참여형, 프로젝트형으로 제시되었으나, 후배들에게는 참여형, 프로젝트형, 강의형의 순서로 수강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을 통해 참여형 및 프로젝트 형의 교과가 수강하기는 힘들어도 교육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 A대학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수준별 교과 편성

3. 역량중심교육과정 모델링

A대학은 역량중심교육과정 체계 마련을 위해 약 10개월 간 다음과 같은 모델링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이후 2023년까지 4년의 점검 및 운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표 6> A대학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체계화 과정

개편 주요 절차			추진 내용
1단계	영역 기본 설정	교과 강의계획서 기반으로 영역 배치	기존 역량기반교육을 초기에 실현하고자 강의계획서에서 역량을 선택하도록 했던 결과와 최종 교과목 배치 영역의 일치도가 높았음 (70% 이상) 교과 별 세부 역량들 중에서 2~3개의 역량을 선택해왔기에, 배치역량과 대부분 일치하였음
		교과 책임교수 확인 및 의견 제시	교수자가 선택한 역량과 현재 배치된 역량 영역은 다를 수 있으나, 강의 요목을 살펴보고 배치 후 안내하여 교수자가 확인하도록 함
		배치 영역 기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 조정	영역별 배치의 원칙은 유사교과들은(키워드 중심) 한 영역 내에 속해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교양대학 배치결과가 우선되어야 함
2단계	영역별 배치	교수자에게 배치 Pool 확인 후 확정	유사교과가 많이 개설되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고, 교과별 폐지, 개설유보, 개선 등의 방향을 수립하도록 유도

	확정		하고 개설년도가 오랜 교과목의 폐지 진행
		교과에 설정값 부여	강의계획서 및 교과명에 기반하여 배치된 초안에서 유사교과, 또는 유사목표의 교과목들과 동일 영역 내에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겠다는 기본원칙 설명
3단계	단계 정의 및 배치	교과 배치완성	4개 역량영역별 3개의 레벨로 구분되는 교과균형 점검
		균형을 위한 신규교과 개발 공모	신규교과 개발 공모 및 편제
		교과 로드맵 제시	각 영역 구간을 넘어서 교과를 설정해서 수강하는 경우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

A대학의 4대 핵심역량에 의해 기존 교과가 재편된 형태는 <표 7>과 같다. 교양교과는 현재 레벨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양교육과정 개편 직후 편제 기준이며, 신규개발 교과 편제 전 교과목 수 기준이다. 이후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신규 교양교과 개발 공모 및 심의, 평가가 진행되어, 교과는 지속적으로 추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7> A대학 핵심역량영역과 수준별 교과배치 현황

	글로벌 시민역량	자기주도적 성장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총합계
3레벨 (프로젝트형)	2	1	8	6	17
2레벨 (참여형)	11	6	29	15	61
1레벨 (강의형)	61	54	46	47	208
총합계	74	61	83	68	286

V. 결론 및 논의

개인의 역량은 사회 진출에 대한 기회를 얻거나 개인의 능력 평가에도 이용되기에(김혜영 외 2021a) 이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지식 중재의 학교 교육만으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출발하였다(송진영, 정경희 2020).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교양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빠르게 바뀌어 가는 세상에서 사회적, 개인적 일상에서 성공적이거나 일반적인 삶을 영위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교양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혜영 외 2021b).

대학들은 대학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등을 반영하여 교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김양희 2021), 역량기반교육은 사회의 실제적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특징이 있다(김혜영, 이숙정 2012). 그래서 사회적 수요에 기반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맞추어 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이러한 기조로 역량 중심 교양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김희성 2021, 이효성, 차성현 2020, 전종희 2023). 많은 대학이 교양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적인 목표를 인재상을 기반의 핵심역량 강화에 두고 대학이 지향하는 인재

양성하기 위해 대학은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핵심역량과 연계한 교과목 개발이나 진로 및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과를 개발하여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시작으로 적절한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현재는 고도화를 거듭하여 대학 나름의 역량교육방법을 독창적으로 시행하거나 역량 교과의 성과나 재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 향상 수준을 측정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이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강화시키는 품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한 A대학의 사례를 다루었다. A대학은 교육효과 제고뿐 아니라 운영상의 측면에서 교양 교육 운영과 관련된 업무 효율화의 측면을 포함하여 역량기반 교양 교육과정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A대학의 교육과정 개편과정은 대외적인 수요 및 대내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학생들의 수강권을 인정하면서도 역량에 대한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고 학생의 수행능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체계였다. A대학 내부적으로는 명확한 원칙을 통해 교수 및 강사의 섭외, 개설, 폐지 등의 조건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면서도 대학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대외 평가에서 교양 교육과정의 논리적 설계와 운영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위해 설계되고 운영되었다. 4년의 운영 과정을 거쳐오면서, 교양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신규 교과를 개설하고, 역량 함양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특히 역량 영역별 교과가 해당 역량을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효과성 등을 지속 평가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이 사례연구는 교과 수준에서 역량연계를 하던 시기를 넘어 교육과정 및 체계 내에 역량 영역으로 구분을 시도하여 교과를 재배치한 부분과 해당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과 운영방법 및 교수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타 사례와 구분되는 점이다. 그리고 교양 교과의 수준을 구분하여 역량의 개념에 충실하게 학습자의 행동이나 학습활동의 난이도를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설계하여 교과를 공모하고 배치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타 사례나 연구들과 다르다. 이는 대학별 고유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전공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로드맵이 제시되는 구조와 같이 학생들에게 교양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수강하고 계획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으며, 타 대학에서 행정적 아이디어를 얻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계에서도 교양 교육과정의 구조에서 학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구분이 가능하여 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나, 학생이 실제로 지식을 넘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갈 수 있는 형태로 교양 교육과정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다.

본 연구가 A대학의 사례로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한계는 있으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고도화되어 가는 과정적 사례로 수준 높은 교양 교육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구조의 교육과정이 가능하다는 확산적 논의의 발화점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대학이 발전적인 교양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Case Study on Competency-Based Liberal Arts Curriculum Modeling

Hyeyoung Kim

This case study is about competency-based curriculum which has become a major educational goal of higher education while the industry presents to universities the educational demand for fostering talented people suitable for the industry. University A, located in Seoul, has reorganized its educational goals by setting the competencies for each subject for the operation of the initial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the direc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encouraging individual instructors to make their own efforts to strengthen their competencies. Accordingly the curriculum in the liberal arts curriculum and the educational method have been implemented in a competency-enhancing type and have been operating for the past four yea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and achievements of curriculum operation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which is the basic and common education of universities rather than individual major curriculum and the basis for various demands.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many universities that want to design and operate competency-based curriculum to get ideas and have joint discussions.

Key words : *Competency-based curriculum, liberal arts curriculum, core competencies, and evaluation of higher education*

참 고 문 헌

- 강경희 (2020). 학생 관점에서의 대학 교양 교육과정 개선 요구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35-44.
- 김대현 (2023). 교육과정을 향한 도전적 시선, 학지사.
- 김양희 (2021). 교육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한 교양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인문사회 21, 12(5), 2967-2976.
- 김희성 (2021). 대학 교양 교육과정 개편 사례 연구. 문화와융합, 43(7), 245-260.
- 김혜영, 이숙정 (2012). 역량교육모델의 진단과 방향 : 역량교육과정과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6(4), 11-40.
- 김혜영, 박소연, 이숙정 (2021a). 코로나 위기가 대학생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의 준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0), 686-693.
- 김혜영, 유지현, 이숙정 (2021b)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 실현에 관한 제언," 교양기초교육연구, 2(1), 83-103.
- 박진희 (2024).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차이 분석: H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0(1), 63-90.
- 박창언 (2016). 수요자 중심 교육의 관점에서 본 대학의 융합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2), 241-251.
- 송진영, 정경희 (2020). 대학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발연구 - S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47-70.
- 숙명여자대학교 (2020). 교양교육과정 개편연구.
- 이효성, 차성현 (2020). 핵심역량 함양과 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편 방안 탐색. 교양교육연구, 14(6), 253-265.
- 오형균 (2012). 교육 맥락에서 교육수요자 개념은 타당한가? 교육원리연구, 17(2), 27-47.
- 전종희 (2023). 국내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체계 및 구성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4(2), 3423-3438.
- 정연재, 주소영, 정기섭, 이영선 (2021).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조건과 방향에 대한 탐색. 교양교육연구, 15(4), 251-263.
- 정지연 (2024).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내용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인식 차이가 교양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주는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8(3), 71-89.
- 정효정, 전은화, 안솔피 (2019). 학생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 교양 교과목 개발 방향 탐색. 열린교육연구, 27(2), 171-189.
- 최호중 (2023).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전문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고찰. 인격교육, 17(4), 113-128.
- 홍석민 (2022).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의 개혁 필요성. 교양교육연구, 16(2), 65-79.
- 한국교육개발원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편람.
- Grant, G. (1979). On Competence: a critical analysis of competency-based reforms in higher education. Washington D.C. Jossey-Bass.